

사형을 면한 예언자

1461년부터 22년간이나 프랑스의 왕위에 있었던 루이 11세 앞에 어느 날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혀 왔다.

그는 불길한 예언을 마구 지껄여 어리석은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죄목으로 사형에 처하기로 되어 있었다.

왕 앞에 끌려 온 그 예언자를 루이 왕이 직접 심문하였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의 운수를 매우 잘 알아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저의 예언은 지금까지 한번도 빗나간 일이 없사옵니다. 폐하.”

“그래? 그럼 그대 자신의 운수도 잘 알고 있겠군.”

“사실은 제 자신의 운수는 전혀 모르옵니다. 하오나 폐하, 다만 한 가지 제가 죽는 날은 확실히 알고 있사옵니다.”

“그래? 그게 어느날인가 말해 보아라.”

“제 운수는 잘 모르오나 다만 제가 폐하께서 승하하시기 3일 전에 죽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사옵니다.”

“뭐, 뭐라고? 지금 뭐라 했느냐, 다시 말해 봐라.”

“네, 저는 폐하보다 3일 먼저 죽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루이 11세는 아무 말 없이, 이 예언자를 석방해 주었다. 왕은 오래 살고 싶다는 욕심으로 자신보다 3일 먼저 죽는다는 그 예언자를 차마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예언자의 재치 있는 이 한마디로 결국 사형을 면하고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